

외교부:

‘빅브릭스 협력’ 추동할 의향 있어

국가주석 습근핑이 로씨야 대통령 푸틴의 초청으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로씨야 카잔을 방문하고 브릭스 제 16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대변인 모닝은 18일 중국은 각측과 함께 ‘빅브릭스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글로벌 남방’의 연합과 자강의 시대를 열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모닝은 올해는 ‘빅브릭스 협력’의 첫해로 이번 회담은 브릭스가 회원

을 확대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소개에 따르면 습근핑 주석은 소규모 정상회의, 대규모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대화회의 등 행사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습근핑 주석은 또한 각국 정상들과 현 국제정세와 브릭스 실무 협력, 브릭스 기제 발전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교류하게 된다.

/ 국제방송

브릭스 기제

발전도상국과 신흥시장국가 협력 증진에 핵심 역할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경제학자 랑국 용은 최근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불안과 다극화 구도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국제정세에서 브릭스 기제가 발전도상국과 신흥시장국가간의 협력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브릭스는 세계경제 지형의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으며 브릭스의 발전 경험은 글로벌 남방(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발전도상국)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브릭스 국가간 각 영역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브릭스 국가와 여타 발전도상국간의 경제무역 교류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날로 긴밀해지는 국제 무역, 투자, 과학기술 교류는

관련 각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발전도상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파이(蛋糕)를 키우기 위해서는 각자원의 국제 협력 기제 특히 브릭스 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교역국이자 상품무역 최대 수출국, 2위 수입국이다. 그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중국의 수입이 여타 발전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 최대 대외투자국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온 투자는 저소득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다각화에 중요한 도움이 됐다고 부연했다.

/ 신화넷

중국

WFP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식량 지원



중국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서(WFP)의 아프가니스탄 식량 지원 프로그램 종료식이 17일 카불에서 열렸다. 아프가니스탄의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중국이 이번에 지원한 식량은 아프가니스탄 각 지역의 주민 25 만명에게 전달됐다.

5월, 아프가니스탄 주재 세계식량계획서 판공실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내에는 약 1,240 만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있다.

사진은 3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찍은 텐트와 어린 소녀.

/ 신화넷

인도

불법 제조 술 마시고 25명 사망

인도 비하르주에서 최근 불법 제조된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인도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매체는 ‘오염된 밀양주’(私釀酒) 판매와 관련된 용의자 22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경찰 책임자 알록 라제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밖에 불량주를 마셔 불량 반응을 보인 20여명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

고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후 비하르주 수석부장 니티시 쿠마르는 관련 부서에 밀양주 판매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비하르주는 2016년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현지에서는 불법 생산 밀양주를 마시다 사망하는 일이 잦았다.

/ 신화넷

[강국의 길에서 분발하고 새 로정에서 활보하자 · 중대공정 순례]

항주오대교, 대만구 발전의 ‘뉴대’로 부상



10월 13일은 항항, 오문의 중앙절 3일련휴의 마지막 날이다. ‘복상’ 휴가를 보낸 항항, 오문 단일 변호판 차량이 분분히 되돌아가면서 항주오대교 주해도로통상구는 출정 차량 흐름의 고봉을 맞이했다. / 중국해관

행사들은 그 여세를 몰아 항주오대교 1일 관광, 주변 관광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았다.

항주오대교 주해도로통상구는 중국 내지에서 유일하게 항항국제공항과 육로로 직접 연결된 통상구이다.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비자정책을 최적화하고 비자 면제 국가의 ‘모멘트’를 끊임없이 확대함에 따라 이 통상구의 통행량도 날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연인원 31 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해통상구를 통해 내지를 출입해 상업활동, 관광, 친척방문, 류학, 방문교류를 했는데 그 인원수는 동기 대비 185.5% 증가했다.

새로운 물류 통로 개척해 발전의 새로운 공간 확장

차와 사람이 섬없이 오가는 항주오대교는 인적 왕래에 박차를 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소들이 더욱 원활하게 류동되도록 했다.

이른아침, 화물차가 주해도로통상구 검사장에 진입했다. 화물차에 실은 화물들은 항주오대교 해관의 검사를 마친 후 항항공항을 거쳐 유럽과 미국에 운송된다.

광둥성 광주시 계예금은진주보석 유한회사 총경리 허건강은 “회사의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은 모두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제시장 가격의 파동이 크고 납품 시효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2023년 5월부터 항주오대교를 활용한 후 오전에 번웅산업단지에서 출고된 화물이 저녁이면 항항공항에서 타지역으로 발송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항주오대교통상구에서는 전천후적인 패속통관 제도를 실시해 물류 운송 시간을 30 시간 단축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리를 건설해 새로운 물류통로를 개척함으로써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했다. 대교와 가까운 금만구의 지리적 우위에 힘입어 주해시 금만구에 자리한 원동커튼월회사에서 생산된 신행 유리외벽은 출고된 후 3 시간 안에 항항과 오문에 도착할 수 있다. 회사의 해관 사무를 책임진 주로는 “하루당 제품이 40 차례 출고되며 항항과 오문에서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

은 이미 50% 이상에 달했다.”고 말했다. 항주오대교 주해도로통상구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경외 직구 제품 수출, 일반무역 수출 그리고 항항, 오문에 대한 전 품목 신선식품 공급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대형 통상구가 되었다.

항주오대교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대교를 건설해 경제무역을 위한 새 통로를 구축하고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적인 저운송을 발전시키는 등에 힘입어 항주오대교는 날로 주해시, 광둥성 서부지역 나아가 광둥성의 대외 무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올해 8월말까지 항주오대교 주해도로통상구에 의한 수출입 총액은 9,223억 8,000 만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슈퍼공정 잘 건설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 중국의 지혜 이바지

주해 연안에 서서 멀리 내다보니 안개에 휩싸여있는 주해가 푸른 하늘과 일색을 이루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항주오대교와 올해에 개통된 심(수)—중(산) 통로는 대만구 교통의 주축을 이루었다.

2017년 ‘하토’(天鵝), 2018년의 ‘망각’(山竹), 2023년의 ‘사울라’(蘇拉) 등 세차례의 태풍 속에서 대교는 세찬 바람과 파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냈다. 현장 감시 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세찬 파도가 인공섬을 휩쓸고 폭우로 인해 물이 다리 위로 세차게 흐르고 있었지만 다리는 우뚝 솟아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항주오대교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태풍이 지난 후 우리는 곧바로 전면적인 조사작업을 전개해 다리의 케블장력(索力), 위치 변동, 진동 등이 모두 설계 허용 범위에 있으며 다리의 주체부분도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차례 또 한차례의 태풍은 시험처럼 대교 품질의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품질의 안정성은 꾸준한 기술 난관 돌파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2009년 12월에 항주오대교가 정식 착공되었다. 120년의 설계 수명을 위해 9년

가까이 되는 동안 건설자들은 선후로 300 개 이상의 기술 난관 돌파를 전개해 여러 기술 면에서의 공백을 메웠는데 바다에서의 인공섬 패속 건설 기록을 세웠으며 또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첫 심층 해저 침매(沉管) 터널을 건설하는 등 기적을 이루어냈다.

품질의 안정성은 매일 반복되는 유지 보수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항주오대교의 개통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운영 단계에 진입해 그 복잡한 유지 보수 환경과 빠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류동량은 대교의 유지 보수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대교를 잘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교관리국에서는 일련의 관리 혁신을 진행하고 디지털 유지 보수, 지능화 모니터링, 응급 관리통제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인적 왕래와 차량 통행에 보다 많은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항주오대교는 령정양 우에 우뚝 솟아 사람들에게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다리건축사업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 다리 건설 면에서의 관건적 기술들은 이미 여러 업종의 기준과 규범이 되어 우리 나라 교통운수 면에서의 기술의 전면적 진보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세계의 해상대교와 해저터널 건설에 중국의 방안과 중국의 지혜를 이바지하고 있다.

신주대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인 북만강(北盤江) 대교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세계에서 지간(跨度)이 가장 긴 사장교(斜拉橋)인 상태(常泰)장강대교가 최후 중간 접합 공사를 순조롭게 끝마쳤으며 세계에서 지간이 가장 긴 현수교인 장정교(張靖皋)장강대교 건설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종 류형의 다리 최대 지간 10위권에서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웅장함을 자랑하는 대교들은 산과 산을 이어주고 바다 랑안을 이어주며 또한 끊임없이 ‘최장, 최고, 최대’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바 세시대 다리 건설에서의 중국의 강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일본 남자 차 몰고 총리 관저 들어받아

일본 방송협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경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일본 자민당 본부를 향해 한 남성이 화염병 비슷한 물건을 던지고 총리 관저 앞 가드레일을 차로 들이받기도 했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10월 19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촬영된 총리 관저를 들이받은 차량.

/ 신화넷

